

## 다양성을 간직한 중세의 충남지역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660년에 백제가 망하자 충남지역의 임존성, 주류성, 가림성 등지에서는 백제왕실과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부여풍(扶餘豐)은 의자왕의 아들로 왜에 파견되었다가, 사비성이 함락된 후 귀국하여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실상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다. 백제의 장군 흑치상지(黑齒常之)는 예산의 임존성에서 최초로 부흥운동을 일으켰으며, 후에는 당에서 위명을 떨쳤다. 백제의 왕족인 복신과 승려 도침도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복신(福信, ?~663)은 의자왕의 사촌 동생으로 무왕대에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했는데, 사비도성이 함락된 후 부흥군을 지휘하였다. 도침(道琛, ?~661)은 주류성을 근거로 부흥운동을 전개하여 사비성을 포위할 정도로 위세를 떨치기도 하였다. 복신과 도침은 은산 별신당에 모셔져 있다.

신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백제 유민은 신라인에 비해 차별을 받아야 했는데, 9세기초 금강 일대를 관할한 웅천주 도독 김헌창(金憲昌, ?~822)은 백제인의 정서를 이용하여 신라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그가 웅천주 도독으로 부임한 지 채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국가 형식을 취하여 신라에 반기를 들 수 있었던 이면에는 웅천주가 백제의 옛 영토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백제 유민의 정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가 세운 장안국은 한때 신라의 9주 가운데 4주를 포함하여 오늘날의 충청도 전라도의 전 지역과 경상도의 서부와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장악하는 기세를 올렸다.

백제 부흥의 염원은 신라의 국내 정세가 극도로 혼란해지던 9세기 말 견훤의 후백제로 계승되었다. 견훤(甄萱, 867~935, 재위 892~935)은 의자왕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호도 ‘백제(百濟)’라 칭하면서 백제 유민들을 포섭해 감으로써, 한때 후삼국 가운데 가장 크게 세력을 떨쳤다. 그러나 930년의 고창(안동) 전투에서 패배한 후 수세로 물리고, 934년 웅진(熊津) 이북의 30여 성을 빼앗기면서부터 대세는 고려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 왕위계승을 둘러싼 분열이 일어났다. 결국 아들 신검에 의해 금산사에 감금되었던 견훤이 고려로 탈출하고, 신검이 황산벌에서

왕건에게 패하면서 백제부흥의 꿈은 무산되었다.

후삼국 시대에 오늘날의 충남 지역은 후백제와 후고구려 사이의 경계상에 위치했으며, 왕건의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의 혼란기에 호족 세력들은 각자 생존의 길을 선택했다. 해안 지역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한 먼천의 복지겸(卜智謙), 박술희(朴述熙) 등은 일찍이 해상활동에 기반을 두고 성장한 왕건의 세력에 합류하여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후고구려와 후백제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여 양국의 쟁패지였던 충남지역은 위치에 따라 세력의 변동이 심하였다.

백제의 왕도였던 웅진에는 통일신라 시대에 웅천주(熊川州), 웅주(熊州)가 설치되었는데, 이곳이 905년에 궁예의 후고구려 영역이었으나 918년 왕건이 궁예를 쫓아내고 고려를 건국하자 후백제로 전향하였다. 그러나 다시 934년 고려 왕건이 운주(후의 홍주, 홍성)를 점거한 후에는 고려 왕건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오늘날의 홍성에 있던 운주(運州)는 처음에 궁예의 수중에 있다가 후백제로 넘어갔으나, 934년(태조 17) 태조 왕건이 예산진에 행차하여 조서를 내리고 이어 운주에서 후백제군을 격파하자 후백제 영역에 있던 웅진 이북 30여성이 고려에 항복하였다. 당시 운주에는 궁준(競俊)이라는 호족이 웅거하고 있었는데, 그는 왕건에게 딸[흥복원부인(興福院夫人)]을 시집보낸 홍주인 홍규(洪規)와 동일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웅주라는 지명은 940년(태조 23)에 공주(公州)로 개칭되었고, 운주도 후에 홍주(洪州)로 개칭되었다.

천안(天安)은 태조 13년(930) 왕건이 후백제 공격의 전진기지로 창설한 군사적 거점이다. 태조의 후비 가운데에는 천안부원부인(天安府院夫人)이 존재하고, 오늘날의 천안에는 태조산을 비롯하여 태조와 관련한 지명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천흥사를 비롯한 다수의 고려시대 절터가 남아 있는 것도 고려시대 천안의 독특한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논산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 전쟁 과정에서 후백제와의 최후의 결전장이었다. 936년(태조 19) 9월 천안에 집결한 왕건의 고려군은 선산에서의 일리천 전투를 거쳐 연산에서 최후의 결전을 치루었으며, 여기에서 신검의 후백제를 항복시키고 오랜 전쟁을 끝냈다. 그리고 고려 통일의 위업을 기려서 최후 결전의 현장에 개태사를 지었다. 이와 같이 고려의 후삼국 통일 전쟁 과정에서 충남지역은 다양한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군사적 거점이었던 홍주, 천안 등이 이후 고려 시대

역사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되었다.